

위암에서의 내시경적 광역동 치료에 대한 경험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소화기연구소

심찬섭, 천영국, 정인섭, Suryaprakash Bhandari, 김진오, 조주영, 이준성, 이문성

(목적) 조기암에서 비수술적 국소적 요법으로서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endoscopic mucosal resection, EMR), 레이저 소작술 등이 최근 널리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식도의 이형성증을 동반한 바렛 식도 및 조기식도암에서 광역동 치료(photodynamic therapy, PDT)에 대한 좋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진행성 위암에서 고식적 목적으로 국소적 PDT에 대한 보고가 일부에서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자들은 조기암에 대한 EMR후의 잔여병변 제거와 위출구 폐쇄 등을 동반한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위암에서의 PDT의 효과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1년 4월에서 2002년 10월까지 본 치료에 동의를 한 조기위암환자 2명, 조기위암으로 EMR을 시행받고 잔여조직이 있었던 4예,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위암 6예(위접합부 종양 3, 출혈을 동반한 1예, 근육층을 침범한 2예), 위출구폐쇄로 인해 금속관 삽입 후 금속내암증식 2예, 재발성위암 1예의 총 15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PDT 전에 빛이 차단된 방에서 Photogem (2 mg/Kg body weight)를 정맥 주사하였고, 48시간뒤에 내시경을 통한 PDT를 시행하였다. 파장은 630 nm, 광량은 150~220 J/cm²로 하였다. 사용한 빛전달 기구로는 원추형 또는 미세렌즈형을 사용하였다. 추적 내시경 검사는 1주일 뒤, 그 이후 1개월 간격으로 시행하였다.

(결과) 총15명(남 : 여=10 : 5, 평균나이 65±17세)에서 21회의 광역동 치료를 시행하였다. 조기위암에서 EMR 후 잔여병변 양상으로 PDT를 시행한 4예는 1달 후 추적 내시경 조직검사서 종양세포 음성이었고, 조기위암 2예는 PDT 후 1달뒤 시행한 조직검사서 종양세포 음성이었다. 위출구 폐쇄로 인해 금속관 시행 후 금속관내종양증식으로 인해 PDT를 시행한 2예에서는 내강개통을 이루었다. 진행성 위암 6예 중 위식도 위접합부 폐쇄가 있었던 2예 모두에서 내강개통이 있었고, 근육층까지 침범하였던 1예에서 완전관해가 있었으며, 출혈을 동반하였던 1예에서는 출혈의 소실이 있었다. 부작용으로는 피부착색증이 4예외에는 다른 부작용은 없었다.

(결론) 내시경적 광역동 치료는 조기위암에서 EMR과 더불어 국소적 치료 요법의 한 방법으로서 유용하며, 폐쇄성 위암 및 금속관내암증식에서 내강개통의 목적으로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좀 더 많은 예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